

工學碩士 學位論文

龍湖洞의 토포그래픽 觀點에서
본 다큐멘터리 研究

指導教授 鄭淵泰

이 論文을 工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2月

釜慶大學校 產業大學院

寫真情報工學科

李相一

이 논문을 이상일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05년 2월

주 심 임 권 택



위 원 정 연 태



위 원 황 철 환



- 목 차 -

Abstract	ii
I. 서론	1
1. 토포그래픽 포토그래피와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	1
가. 토포그래픽 포토그래피	1
나.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	2
2. 주제 설정동기	7
II. 본론	10
1. 촬영 대상 지역의 역사적 배경	10
가. 용호2동의 특성	10
나. 용호2동 한센병자에 관련한 연표	15
다. 한센병 치료의 초기상황	17
라. 한센병과 관련된 주요기사	18
2. 용호2동 개발지역의 다큐멘터리	23
가. 촬영 계획	23
나. 촬영 기간	23
다. 촬영대상의 범위	23
라. 촬영에 사용한 기자재	24
마. 사용 필름과 현상방법	24
III. 결론	26
IV. 작품사진	28
V. 참고자료	62
1. 도판	62
2. 참고문헌	66

A Study on Topographic Documentary of Yongho-dong

Sang-Il Lee

Department of Photographic Science &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Yongho apartment complex is supposed to be built all over Yongho farmland lied in Yongho 2 dong, Namgu, Pusan metropolitan city. This sunny area, where several kinds of blossoms bloom even in winter, has a fine view of Ohryukdo ireland. Originally, Yongho Farmland-founded to make leprous patients survive and support themselves and they formed their own cooperate association-was called both a leprous patients' resettlement and a second native places.

But with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complex, it will not be long before the residents leave the village just after the compensation money being paid. Now, houses they have lived for scores of tens and alleys they have come and gone down and up are being dug and overthrown with a loud noise of excavators. So, Yongho-dong views of nowadays will be perished soon behind histor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compare picture-view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hanges around Yongho farmland and to hand them down as a documentary form.

The duration of taking pictures is from the time when the residents almost left their houses and working places to the one when all buildings removed and

the area is being arranged. The work of taking pictures(keeping documents) was not done in the focus of human being as a subject, but this was intended to be able to compare changing views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construction. So before pictures being taken, they was tried to be taken kept to be realistic and objective documents excluding subjective emotions. And then those who observe these documents were aimed to be able to be made to judge results from them.

I promise to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changing views in Yongho-dong, and to publish a documentary book of precisely-chosen pictures. Finally, I hope this thesis and my documentary book will be helpful to those who study geopolitics.

I. 서론

1. 토포그래픽 포토그래피와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

가. 토포그래픽 포토그래피(Topographic Photography)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뒤, 국토탐사를 위해 실시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는 당연히 많은 사진가들이 참여했다. 남북전쟁을 기록했던 알렉산더 가드너(Alexander Gardner, 1821~1882), 티모디 오설리반(Timothy O’Sullivan, 1840~1882), 윌리엄 헨리 잭슨(William Henry Jackson, 1843~1942) 등의 국토 탐사 사진들은 말하자면 초기의 지정학적 사진(Topographic Photography)들이었다.”¹⁾

이들이 찍은 사진들은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써 북위 40도 부근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티모디 오설리반은 그 후 콜로라도 계곡을 탐험하였고 애리조나 계곡에서는 그의 대표작인 ‘케니언 드 세이’²⁾를 찍었다.

그런데 요즘 ‘지정학적 사진’에서 이름을 따온 현대사진의 한 부류로서 ‘신지정학적 사진(New Topographics)²⁾’²⁾이라는 것

1) 한정식. 현대사진을 보는 눈. 서울: 눈빛, 2003. p.190.

2) 상계서. p.189.

이 생겨났다. 이 신지정학적 사진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질로 변질되고 파괴된 자연경관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사진군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 새로운 풍경사진의 등장은 우선 정통적 풍경사진에 대한 반발·비평으로 받아들여진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근대사진까지의 전통적 방법론이었다. 그것을 현대사진의 중심이 되는 일군의 사진가들이 다시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용호동을 대상으로 기록한 사진들은 표현 방법에 있어서 원근감이나 구도에 있어서 안정된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 인간의 모습이 없는 사진에 있어서도 인간이 살던 흔적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정통적인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에 근접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냉정하게 왜곡됨이 없이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신지정학적 사진'에 근접해 있음으로 전통적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와 '신지정학적 사진'의 절충적인 성격을 띠다 하겠다.

나.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Documentary Photography)

앗제(Eugène Atget, 1856~1927)가 작업하던 파리의 아파트 암실 문 앞에 '예술가를 위한 다큐멘터리'라고 써 붙여져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 슈르리얼리즘 화가들의 아틀리에에는 앳제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슈르리얼리즘 화가들은 앳제의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작품 활동에 도움을 얻곤 하였다. 여하튼 사진에 있어서 다큐멘터리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기 시작하였다.³⁾

사전에서 다큐멘터리의 뜻을 찾아보면 “문서, 서류, 기록 등 명사로, …에 증거를 제공하다는 등 타동사”⁴⁾로 되어있다. 이러한 뜻으로 보면 일반적인 기록사진도 그것이 증거물에 가까운 사실성과 정밀성을 갖추었을 때라면 다큐멘터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1942년에 프랭크 모트(Frank Mott)가 사용한 용어 포토저널리즘(Photojournalism)은 인쇄매체와 연관된 사진을 말한 것인데, 이러한 사진들이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다큐멘터리의 부류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토저널리즘은 사진가 개인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사진부, 편집국, 언론사의 방침 등으로 걸러져 발표된다. 이렇게 조직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포토저널리즘과 개인 작업을 바탕으로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과는 기능이나 성격으로 볼 때 유사한 면이 있지만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 단계에서 걸러지는 포토저널리즘과 순수한 개인적인 감성으로 만들어지는 다큐멘터리 사진은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이지만, 제이콥 어거스트 리스(Jacob August Riis, 1849~1914 ; 1870 덴마크에서 미국으로 이민)는 사진으로 사회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은 최초의 사진가로 항상 거명하게 된다.

그는 뉴욕 빈민촌의 참담한 모습^[도판3]을 보고 개선운동을 전개한 사회 개선주의자이다. 처음에는 글로 써서 자신의 주장을

3) 한정식. 다큐멘터리 사진을 이야기 한다. 제3회 동강 사진전(2004). p.2.
<<http://www.imagepress.net>>

4) 사전편찬위원회 편. 영한중사전. 서울 : 금성교과서, 1986. p.658.

관찰시키려 하였으나 사진의 호소력이 문필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진으로 전향하였다. 그는 1888년 뉴욕의 「이브닝 선」지에 ‘슬럼가에 빛을 밝혀’라는 제목으로 12매의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캡션이 붙여져 있었다.

“매일 밤마다 슬럼가에는 기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길거리에는 잠에 취한 경찰관과 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고, 경찰서 유치장은 부랑아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런 밤거리에서 3, 4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을 누비면서 플래시를 번쩍이다가 밤이 새기 전에 자취를 감추어 버린다.

여기서 3, 4명의 사람들이란 제이콥 어거스트 리스와 아마추어사진가들을 말하는 것이다. 제이콥 어거스트 리스는 한 밤중에 슬럼가를 촬영한 이유에 대하여 10년 동안 빈곤과 악의 실체를 글로서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고, 오로지 다큐멘터리 사진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⁵⁾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란 이와 같은 힘든 노력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진들은 노력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제이콥 어거스트 리스의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는 최초의 포토 캠페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이명동. 보도사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해냄, 1988. p.35.

제이콥 어거스트 리스에 이어 20세기 초에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의 개막을 장식한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나타났다. 그는 루이스 위케스 하인(Lewis Wickes Hine 1874~1940)이라는 사람이다.

루이스 위케스 하인은 시카고, 콜롬비아, 뉴욕 등의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였는데, 사회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캘리포니아의 면사공장」^[도판4]이라는 제목으로 면사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가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사진을 찍어 발표하였다. 루이스 위케스 하인은 하나의 테마를 스토리로 엮어나가는 작업을 하였고, 처음으로 포토스토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였다.⁶⁾

20세기 초두에 사진의 새로운 표현방법으로 태어난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는 20세기 초부터 1960년대까지 소위 근대사진이라는 사진사조의 주류를 이루었으며 사회참여에 그 근본을 두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35년부터 이다. FSA(Farm Security Administration) 사진이 미연방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대공황속의 미국 농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을 심도 있게 기록한 사회적 다큐멘터리(Soial Documentary) 사진^[도판5, 6]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955년에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인간가족전은 근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금자탑으로 꼽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 최대

6) 이명동. 전계서. p.36.

의 전시회였다.

다음해인 1956년에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 1926~)^[도판7]의 사진집 「뉴욕」에, 이어서 1958년 로버트 프랑크(Robert Frank, 1924~)의 사진집 「디 아메리칸즈」^[도판8] 등이 발표되었다. 이를 신호탄으로 하여 현대 다큐멘터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클라인과 프랑크는 현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선두주자들이다. 그들이 현대사진의 선두주자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들의 사진에서 보여주는 영상의 혁명성에서 온다. 이들 현대 다큐멘터리는 영상의 충격성과 지극히 개인적 관심사의 표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출발하였다. 공론적·객관적 기록 수단에서 개인적 주관적 표현 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들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혁명성은 기록성에 묶여 자유로운 운신이 위축되어 있던 근대 다큐멘터리 사진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록적 가치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표현 예술로서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데에 있다. 동시에 부정적 인간관을 솔직하게 드러낸 최초의 사진가들이기도 했다.

근대사진이 긍정적 인간관의 다큐멘터리였다면, 현대사진은 사회의 현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부정적 인간관의 다큐멘터리라 할 수 있다. 현대가 만들어낸 부정적 인간상에 대한 냉철한 관찰 기록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필자의 사진들은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임으로 포토스토리의 성격을 띤 다큐멘터리이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객관성을 견지하는 사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뉴 토포그래픽스에 속한다.

2. 주제 설정 동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동은 오륙도가 건너다보이는 경치 좋은 곳으로써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자주 찾아 오는 곳이다.

엘빈 토플러의 말대로 인류의 문화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 나간다.⁷⁾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10년이 아니라 10개월 이면 예전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버리고 만다.

용호동의 변모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만 해도 한적한 시골 풍경을 부산 근교에서 볼 수 있는 낭만적인 곳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그때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지형도 몇 달 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중장비의 위력은 대단히 크다. 현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개발 사업들을 인간의 생활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하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해변에 인접한 길을 차가 다니기 좋게 넓히고 아스팔트로 포장한 곳이 많다. 차가 다니기 좋게 되었고 교통과 물류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데에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7) Alvin Toffler. 제3의 물결. 李揆行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2. p.27.

그러나 자연과학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공사에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해안에 인접한 곳곳에서 아스팔트 도로에 균열과 함몰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보수하는 작업의 현장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심지어는 포장도로가 무너져 내리는 일도 발생한다. 해안의 파도가 모래와 토대를 쓸어가고 포장도로는 공간에 뜬 상태로 있다가 종래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해안의 도로 하나를 포장할 때라할지라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뒤에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빈번한 이때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동에서 지형이 바뀌는 대단위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도판14, 15]

용호2동에는 용호농장⁸⁾이라고 불리는 대규모의 양계·양돈장이 있었다. 금년(2004) 봄에 철거되고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이 농장은 한센병 회복자들(양성환자들은 소록도에 수용)이 상호회를 조직하고 경영을 해왔던 곳이다. 즉 용호2동에 있는 용호농장은 한센병 회복자들의 생활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해안에 위치한 이 곳의 지형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대형 아파트를 지으려면 건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형질을 변경하는 정지작업이 따르기 마련이다.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는 하였으나 주의를 기울이는 데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곳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이제 곧 사라져 버릴 용호동의 현재의 모습, 변해가는 국토의 모습을 한 부분이나마 변하기 전에 기록(Documentary)해 둬

8) 부산직할시 남구청 편. 남구지. 부산 : 부산광역시 남구청, 1994. p.229.

으로써 지형학적(Topographics) 자료로 남기고자 하였다.

II. 본 론

1. 촬영 대상 지역의 역사적 배경

가. 용호2동의 특성

오륙도가 내려다보이는 용호2동은 한겨울에도 꽃이 피는 따뜻한 곳으로써 주거지역으로 최적지이다.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정지작업이 진행 중인 이곳 공사현장(용호농장 일대)에서 생활하던 토착민의 대다수는 한센병회복자들이었으며, 그들의 몇 대 선조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내려온 외지의 한센병 환자들이었다. 이곳은 일찍부터 그들이 조성한 그들의 정착촌이었다. 그들은 상호회를 조직하고 양계를 업으로 삼아 공산적 방식으로 자립하였다. 그 후 사회의 공업화에 발맞추어 자동차 부품과 석재가공, 가구공예 등으로 생계활동을 확장하여 나아갔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된 배경에는 의료선교사 어빈(Ervin)과 맥켄지(N. Mackenzie) 같은 이들의 헌신적인 구라(救癩)활동의 은덕을 입어온 덕분이다.

용호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본인 한센병 전문 연구가 다케오에이지의 글을 소개한다.

...용호농장을 찾은 것은 1996. 10. 27.과 1997. 1. 28.에 이어 1997. 2. 9. 세 번째 방문이다...

...부산 역에서 오륙도까지 택시로 와 차에서 내려 약 100m 가량 온 길을 되돌아가면 거기가 용호농장이다. ... 커다란 계사(鷄舍)가 있는 비탈길을 올라가면 왼쪽 길모퉁이 문기동에 「대한기독교장로회 상애교회(相愛教會)」라 쓰여 있는 교회가 있다. 문 곁에 머리가 뿔죽한 사각의 석비(石碑)가 서 있다. 석비 정면에는 「대영라병자구료회기념비(大英癩病者救療會紀念碑)」라고 새겨져있고, 뒷면에는 「창립주후(創立主后) 1909年 10月...주후(主后) 1930年 5月 부산나병원일동」이라고 새겨져있다. 측면에는 「부산나병원창립공로자」로서 심익순(沈翊舜), 어을빈(魚乙彬), 사목사(史牧師) 등 삼인의 이름과, <관리자>로서 매견시(梅見施)의 이름이 썩어있다. 어을빈(魚乙彬)이란 어빈(Ervin)을 일컫음이다. 1909년 3월, 어빈은 경남 동래군 서면(西面)에 나병원을 창설, 동년10월에 「상애교회(相愛教會)」를 설립하였다. 관리자로 되어 있는 매견시(梅見施)는 맥켄지(N. Mackenzie)를 일컫는 것이다. 맥켄지는 어빈의 뒤를 이어받아 영국구라선교회(英國救癩宣教會, British Mission to Leper)의 지원으로 1911년 4월에 부산나병원을 설립하고, 동회의 지원으로 시설을 확장해가면서, 오랫동안 이곳의 관리자(병원장)로 일해 왔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료선교사로서 73세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이 병원에서 일했다... *원래 이 석비는 부산나병원에 있었던 것을 해방 후 이곳으로 옮긴 것이다.^[도판9, 10, 11, 12] ... 용호동은 한센병 회복자들이 일구어낸 정착촌이다. 용호농장 부근에는 네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가톨릭교회이다. ...⁹⁾

그는 일본인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펼친 구라 활동을 소개하기 위하여 소록도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는데 나병과 연관된 용호동을 세 차례나 방문하였던 것이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 발간한 남구지¹⁰⁾에 소개되어 있는 용호동의 내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위치 ; 용호동은 남구에서 그 넓이가 두 번째로 큰 동으로서 남구의 동남단에 위치해 있다.^[도판13] 동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은 바다와 접해 있고, 서쪽은 용당동과 대연동의 일부와 접해 있다. 용호동은 남해바다에 뻗어 있는 용호반도에 위치해 있다.

(2) 역사 ; 용호동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동래부지」에 보면 용호동은 조선시대에 분개(盆浦)라 했다. 분포리(盆浦里)는 동래부의 관무니에서 28리의 거리에 있다고 기록해 놓았다.

용호동은 조선조 경종 원년(1721) 이후부터 지금의 용호2동인 구터 자리에 처음으로 몇몇 집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주민들은 울창한 숲을 해치고 농토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한편,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해초를 채집하면서 생활했다. 이들은 크게 네 개의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는데, 첫째부락은 지

9) 瀧尾英二, 朝鮮ハンセン病史-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東京: 未來社, 2001. p.306.

10) 부산직할시 남구청, 전계서, p.225.

금 현재 용호1동의 백운국교 아래편 마을이고, 둘째 마을은 용호3동의 용호중학교 아랫마을이며, 셋째 마을은 지금 현재 용호1동의 새마을 유아원 부근이고, 넷째 마을은 용호1동 용호여중 아랫마을이다.¹¹⁾

해방 당시 용호동에 거주했던 씨족을 보면 김해 김씨, 금영 김씨, 파병 윤씨, 개성 왕씨, 담양 전(田)씨, 밀양 박씨 등이 모여 약 100여 호를 이루며 살았다 한다.

분개는 그 지명이 말해 주듯이 소금의 생산과 땀 수 없는 역사적 인연이 있는 곳이다. 일제는 한일합방 직전에 통감부에서 이곳에 시험제염용호출장소를 설치하여 염전을 점차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기 시작하였다. 1910년 조선총독부 발행의 「제정통계연보」를 보면 1909년 이곳 분개의 1년간 제염생산량은 44만4천2백6근에 달했다고 한다.¹²⁾

이곳 분개에서 생산한 소금을 경상도는 물론 강원도와 함경도에까지 판매하여 일본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기도 했다.

용호동의 역사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표는 동제를 지내는 일이다. 용호동의 동제 역사는 300년이 넘는다고 한다. 이 동제는 용호동의 할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지내는데, 음력 9월 9일 날, 마을 뒷산인 장산봉에 올라 산신제와 용왕제를 지내고 내려오면서 동제당에 들러 동제를 모셔왔는데, 이 제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유래 ; 용호동의 북쪽 부분 즉 지금의 용호1동과 용호3

11) 남구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편. 부산남구향토지. 부산 : 남구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1985. p.112.

12) 부산시교육연구원 편. 향토자료집. 부산 : 부산시교육연구원, 1970. p.80.

동 위쪽 부분, 동국제강이 들어서 있는 자리 근처를 분개라 했다. 그것은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넓은 그릇 모양의 염전이 있는 갯벌이란 뜻으로 분개라 했는데, 이를 한자로 바꾸어 쓰면 분포(盆浦)가 되는 것이다.

이 고장에서 언제부터 소금을 구워 왔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서 잘 알 수가 없지만 분개라는 이름이 오래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용호동의 분개는 조선시대부터 이 고장의 유일한 소금 생산지였음이 분명하다.

용호동의 일대를 분개라는 이름으로 불리오다가 용호동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하여 다스리던 한일합방 때부터라고 한다.¹³⁾

일설에는 용호동에 작은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승천하지 못한 용(이무기)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용호동이란 동명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다.

(4) 연혁 ; 용호동이 발전되어온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671. 용호동 구터 자리에 사람들이 정착
- 1740. 동래부 남촌면 분포리
- 1910. 동래군 용주면 용호리
- 1936. 부산부 부산진출장소
- 1953. 부산시 부산진출장소와 대연출장소로 분리됨.
- 1972. 용호지구 구획정리사업 발주

13) 부산직할시 남구청. 전세서. p.80.

• 1973. 부산시 정책이주사업 실시 및 새마을 시범지구로 선정함. 신흥주택지로 변모하기 시작함.

• 1975. 10. 1. 부산직할시 남구 개설. 용호1동, 2동으로 분동됨.

• 1982. 9. 1. 용호1동이 1,3동으로 분동됨.

• 1983. 10. 1. 용호2동이 2,4동으로 분동됨.

(5) 동의 현황(1994년도 기준) ;

• 면적 ; 6.22 km²

• 인구 ; 77,229명

• 총가구수 ; 21,292

• 행정동 ; 4개

• 통 ; 134개

• 반 ; 645개

나. 용호2동 한센병자에 관련한 연표¹⁴⁾

1910. 3. 30. 의료선교사 어빈, 동래군 서면에 나병원 설립

1910. 8. 22.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조인

1910. 10. 1. 육군대장 寺内正毅, 조선총독에 취임

1911. 4. 30. 어빈 뒤이어, 의료선교사 맥켄지가 부산근교에 나병원설립

1912. 11. 15. 광주나병원설립, 원장 월슨

1913. 3. 1. 대구나병원설립, 프렛처 의원장이 설립

14) 瀧尾英二. 전계서. 부록.

1916. 2. 24. 조선총독부에서 전라남도애 ‘慈惠醫院’ 개설, 정원 100명
1917. 5. 17. 소록도‘慈惠醫院’ 개원식 거행
1918. 6. 21. 조선일보-‘조선나환자수는 1917년말, 36,589명’
1919. 2. 24. 한하운, 함남 함주군 동천면 쌍봉리에서 출생
1919. 3. 1. 3.1독립운동시작, 조선전토애 확대
1920. 3. 31. 사립나환자수용자수, 광주 387명, 대구 130명, 부산 190명
1923. 4. 1. 조선의 사립나요양기관, 금년도부터 국고에서 보조금을 받다.
1926. 6. 26. 조선일보-‘나환자가 부산애 모인다, 당국 고심’
1932. 11. 9. 제5회 나학회(大阪)개최, 부산의 맥켄지 참가
1932. 12. 27. 재단법인 조선나예방협회 설립, 사무소는 총독부경무국 내
1935. 1. 17. 국제 스파이 혐의로 맥켄지 송국, 요새법위반
1935. 2. 5. 맥켄지 나병원장, 요새지대 위범(違犯) - 공판을 회피
1939. 10. 28. 조선일보 - ‘부산의 대연동 나환자 약 500명의 집락(集落), 소각을 결정’
1940. 9. 2. 소록도우편국에서 전신사무, 전화사무 취급개시
1940. 9. 4. 제14회 일본 나학회를 소록도갱생원에서 2일간 개최
1940. 12. 31. 단종(斷種)수술을 받은 소록도갱생원부부동거

자 840쌍

1940. 12. 31. 소록도갱생원 수용환자총수는 6,137명

1941. 3. - 釜山相愛園을 총독부는 強制封鎖시키고 군용지로 접수

1942. 6. 20. 소록도갱생원장 周防正季가 입원환자 李春相에 의해 刺殺

1943. 2. 19. 李春相 대구형무소로 이송되어 사형이 집행됨

1945. 8. 15. 일본, 무조건 항복. 포츠담 선언 수락을 발표. 조선의 해방

1945. 8. 18. 입원환자 간부를 공회당에 모아 패전을 전달

1945. 8. 21. 소록도에서 조선인 직원들에 의한 환자 대학살(83명)

1945. 8. 24. 일본군이 소록도에 출동, 일본인 200명은 일본군에 따라 철수

다. 한센병 치료의 초기상황

1907년 부산 동래군 서면(일본인들이 적기「赤崎」로 이름 붙인 곳)에 나병원이 미국의 의료선교사 어빈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그 뒤를 이어 스코틀랜드 출신의 맥켄지가 1911년 4월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한센병환자 관리를 시작한 것은 한일합병이 강행된 1910년부터 5~6년이 지난 1915년경이었다. 환자수용시설은 정원이 100명으로 1916년

소록도자혜의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설하였다. 원장은 蟻川亭이라는 군의였는데, 내무부 제2과장을 역임한 大塚常三郎이 평양자혜의원 원장으로 부임하고, 소록도자혜의원에 대한 그의 지시 내용은 환자의 수용은 모양만 갖추면 되는 것이며 세계에 조선 총독부가 나환자의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철저한 식민지의료를 강행하였다. 처음에는 40명이던 환자 수가 수년 후에는 99명으로 늘어났다.

花井善吉 院長시대(1921~29)의 1929년경에는 600명 정도로 수용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花井善吉 원장은 소록도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한센병환자에 대한 정책과 의료에 힘썼다.

1933년 6월, 소록도의 주민 154가구 9천여 명을 섬 밖으로 이주시키고 조선 전역에서 6천명의 환자를 강제 격리 수용하였다. 이것은 규모에 있어서 세계 제일의 한센병 ‘격리의 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한센병과 관련된 주요기사

1924. 2. 18. - 동아일보 ; 동래나병환자

동래군 서면 나환자수용소의 현재수용환자는 372명에 달한다는데 동송에서 수용환자 중 본년1월에 전치 퇴원한 환자 수는 남자1명 여자2명이었다더라.

1924. 6. 11 - 동아일보 ; 문둥이 5백 명이-촌락을 습격하

려다가 경찰과 충돌되어 소동

주민의 병자기피가 원인...

1924. 8. 12 - 조선일보 ; 모여드는 나환자의 무리-당국
그 처치에 고심

매년 4월경 어디에선가 몰려드는 나환자 때문에 부민과의
충돌이 잦아 골치...

1924. 8. 12. - 大阪朝日新聞-朝鮮版 ; 부산의 해변으로 모
여드는 나환자의 무리들 / 당국 그 처치에 고심

매년 4월경이 되면 부산의 해안으로 나병환자들이 몰려들
고 있다. 이들과 일반 부민 간에 종종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
나면서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부산)

1926. 10. 17. - 동아일보 ; 요양비 좀 달라고-나병환자 탄
원-삼백십 여명의 문등병자가

...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戶谷里 癩병환자상조회의 대표 金
敦化가 총독부당국에 월동비 륙천사백여원만 달라는 탄원...
수용소는 만원이라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1926. 11. 7. - 조선일보 ; 치료비의 하부를 진정-나병환자가
부산교외 적기 우도 부근에 모여 사는 나환자 150명은 金
敦化를 대표자로 하여 경남도를 경유 齊藤總督에 대하여 1개
년간의 치료비 6,400여원의 下附를 진정하고 있는데, 그들의

진정서는 비참한 문자로 점철되어 있음에 도 당국에서도 중대한 하나의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

1926. 12. 2. - 조선일보 ; 東萊에 모여 사는 나환자군-상조회를 조직-공산적 생활-보조금 교부는 却下되다.

경남 동래군 西面 戶谷里에는 23년 전부터 조선인 나환자가 부락을 이루어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현재 130여명을 웃도는데, 대부분이 부산시내에서 구걸하며 ... 6,400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는바 당국의 방침으로서는 보조는 필요치 않다는 결정을 하고 신청자에게 회신...

1927. 8. 1. - 동아일보 ; 癩病者蝟集-부산진대위협-수용소만뒹고작구모히여-收容所狹窄과 주민피해

동래군 서면 감만리에 있는 나병환자 수용소에 사백 명이나 수용하고 있어, 그 이상 수용할 여지가 없는데도 각지에서 하루에도 환자들이 수십 명씩 모여들고 있어 부산진에는 갑자기 나환자들이 떼 지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1927. 10. 21. - 동아일보 ; 부산나병환자 소록도로 이전 협의 중임...

1928. 4. 21. - 동아일보 ; 부민을 위협하는 부산나병환자-여러가지로 문제가 만탄중에-전남방면으로 이송결정

용두산과 대청공원 등의 나환자들을 광주, 여수, 소록도 등

지로 이송 합의...

1928. 5. 16. - 조선일보 ; 부산의 나환자를 소록도에 옮기다-이에 편리한 도서에 수용소 설치 계획

[부산]부산시내를 배회 군집하는 나환자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큰 문제인바, 전라남도와의 타협이 이루어져, 처음에 50명 그리고 7, 80명으로 늘리는 정도로 하여 소록도 나병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의원의 증치가 이루어지면 이어서 착수할 것이라고 한다. 전남 소록도자혜의원의 환자수용력은 1,000명인바 당국은 교통이 편리한 도서를 물색하여 환자의 수용시설을 고려하는 중인 것 같다.

1931. 1. 22. - 조선일보 ; 경남도의 나환자 연년 증가-당국 처리에 고심

[부산]경남도에 있어서 나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도 위생과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환자 수는, 부산서면 나수용소에 568명, 나상조회에 100명, 자택요양 1,050명, 상시 배회자 420명, 기타 미조사 구역분과 조사 누락자 등을 합하면 이천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남 다음으로 많은 수자이다. 부산에는 나수용소가 있어 이 시설에 수용되기를 희망하여 모여드는 것이라고 보인다.¹⁵⁾

1939. 10. 28. - 조선일보 ; 부산을 배회하던 나병환자 일

15) 不二出版 刊 植民地下朝鮮におけるハンセン病資料集成, 第4卷. 동경: 不二出版, pp. 18~140.

소, 4백 명을 소록도로

[부산발] 경남에서 전남 소록도갱생원에 수용할 나환자 400명은 내월 6일 동원의 전속 수송선으로 부산에서 출범한다. 환자의 대부분이 부산시내를 배회하는 자들로서 이번 수용으로 부산의 도시 경관은 면목을 일신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발] 부산시민이 위협을 느끼던 부산 大瀛里에 집단 거주하는 나환자 수백 명은 한사람도 남김없이 전남 소록도 요양소에 수용되기로 되었는데, 부산에서는 나환자가 거주했던 가옥을 전부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정, 11월 6일 1시 회의를 소집, 이에 소요되는 경비 3,000여원의 예산을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¹⁶⁾

앞에 열거한 연표와 기사들로 미루어 볼 때 기온이 비교적 온화한 전남과 경남 등지에 나병환자들이 모여든 것 같다.

특히 용호2동은 한겨울에도 꽃이 필 정도로 따뜻하고 해변에는 해초와 조개류를 채취하기 쉽고 언덕에는 감자나 고구마 등을 재배하기에도 좋은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일찍부터(1910년) 가까운 곳에 의료선교사가 설립한 나병원이 있어 그들에게는 최적의 지리적 조건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얼마간의 보상금을 손에 쥐고 인근 아파트 단지로 뿔뿔이 흩어졌다.

용호동은 이제 그들의 고향이 아니다.

16) 不 刊版 편 전개서, p.308.

2. 용호2동 개발지역의 다큐멘터리

가. 촬영 계획

훗날 이 기록물이 지정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판단은 사진을 보는 이들이 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한 촬영자의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성 있게 기록한다.

나. 촬영 기간

2003. 3. 15.(토) ~ 2004. 11. 28(일)

용호동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용호동의 주민들이 보상을 받고 대부분 떠난 뒤이다. 이 시점부터 촬영을 시작하여, 건물의 철거 작업과 정지작업이 끝나는 시점까지를 촬영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다. 촬영대상의 범위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동 내에서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일원을 촬영 대상으로 제한하고, 다큐멘터리의 초점은 지정학적 관찰기록으로 써, 공사전과 공사 후의 지형적 변화 양상을 객관

적 입장에서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할 뿐이다. 개발공사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보는 이의 몫으로 하였다. 제시되는 사진들 중에는 가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점경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본 기록의 주인공이 아니며 표현 의도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님을 밝혀둔다.

본 보고서 작성 시점이 공사가 진행되는 중임으로, 아파트 공사가 완료된 시점의 양상은 제외된다. 그래서 본 논고의 퇴고 후에도 다큐멘터리 작업은 계속될 것이며, 별도로 전 과정의 사진을 한권의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라. 촬영에 사용한 기자재

(1) 카메라; 본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한 카메라는, 세부적인 섬세한 묘사보다는 기동성과 속사성, 접근 용이성 등에서 유리한 35mm 소형 카메라를 선택하였다.(Nikon F5 사용)

(2) 렌즈; 촬영할 내용이 지형과 건물 등으로서 사각의 변화를 광범위하게 요구함으로써 피사계심도와 화각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줌 렌즈를 사용하였다.(Nikon ED, AF-S NIKKOR 17-35mm 1:2.8D, AF-S NIKKOR 28-70mm 1:2.8D, AF-S VR-NIKKOR 70-200mm 1:2.8G 사용)

마. 사용 필름과 현상 방법

(1) 필름 : Kodak Tri-X pan, ISO 400 표준노출.

(2) 현상 : Kodak D-76 1:1, 20℃ 30초마다 5초간 교반, 10분 현상

Kodak Tri-X pan 필름은 ISO 400의 고감도 필름으로써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기에 유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촛불 한 개의 조명으로도 촬영이 가능한 ISO 6400까지 증감이 가능한 필름이다. 따라서 용호농장과 같이 어두운 건물 내부를 촬영하여야 할 때에는 증감처리가 용이한 Kodak Tri-X pan 필름이 유리하다는 생각에 이 필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는 저속셔터(경우에 따라서는 1/4초)를 사용하는 것으로 노출이 부족 됨이 없었기에 증감처리는 하지 않았다..

Kodak D-76 현상액은 미립자 현상액으로써 1:1로 희석하여 사용하면 경제적이면서 화질은 더 좋아진다.

현상은 나이콜타입의 스텐레스 소형탱크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시간 현상법을 택하였다.

용호농장의 건축물은 대부분 회색조의 시멘트로 건조되어 있으며 색칠되지 않았다. 건물의 내부를 기록하여야 할 경우 건물의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장시간의 노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고감도의 흑백필름을 사용함으로써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Ⅲ. 결 론

용호2동은 약 1세기를 걸쳐 한센병 환자들과 애환을 함께 나누어온, 여느 지역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 지역이다.

이 지역은 경치가 좋고 겨울에도 따뜻한 양지바른 곳으로 주거지로써 좋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요양하기에도 적합한 곳이다.

이제 용호2동은 대형 건설업자에 의해 모습이 바뀔 운명에 놓여있다. 이 지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다큐멘터리에 착수하였다.

제이콥 어거스트 리스, 루이스 위케스 하인, FSA 소속 사진가들 등의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피는 인간의 생활을 중심 테마로 다루었다. 그러나 필자의 이번 다큐멘터리는 뉴 토포그래픽스에 입각하여 찍은 것으로써, 용호2동의 변모 양상을 주 테마로 한 것이다.

본 연구물은 용호2동의 지정학적 사진으로, 계획한 기간 중에 계획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촬영한 일만여 컷의 사진에서 34 컷 만을 선정하여 본 논고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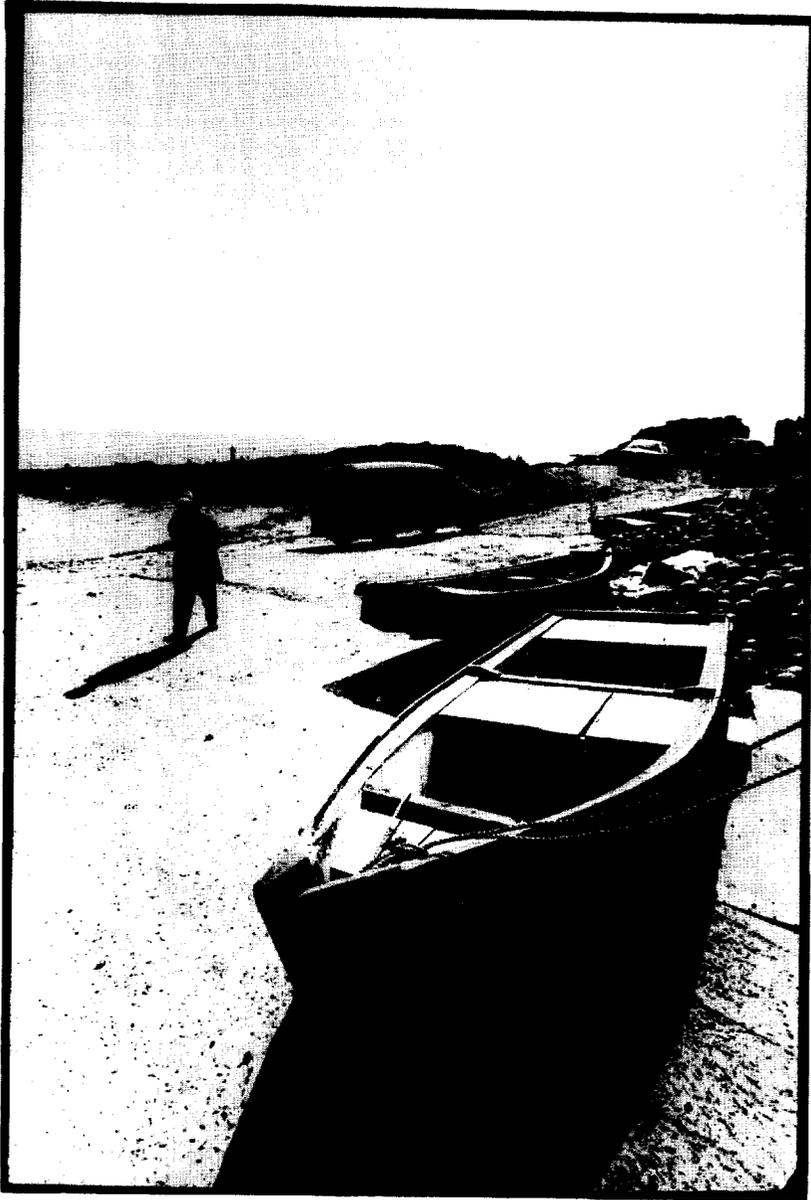
지면 관계로 여기에 더 많은 사진을 실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차후 정선하여 별도의 사진집을 간행하여 지정학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도가 바뀔 정도의 대 역사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사 이전의 모습을 기록해 두는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차후에라도 이와 같은 경우 지정학적 사진을 남겨두도록 당국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IV. 작품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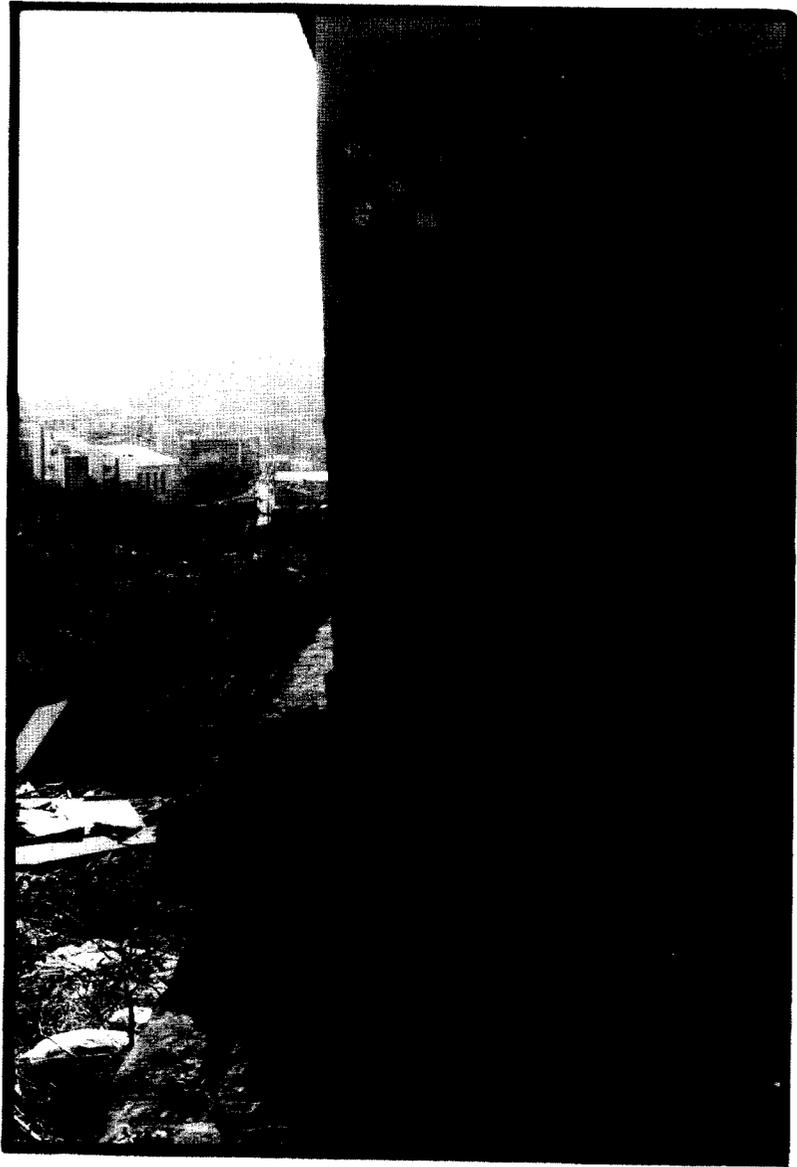
[사진 1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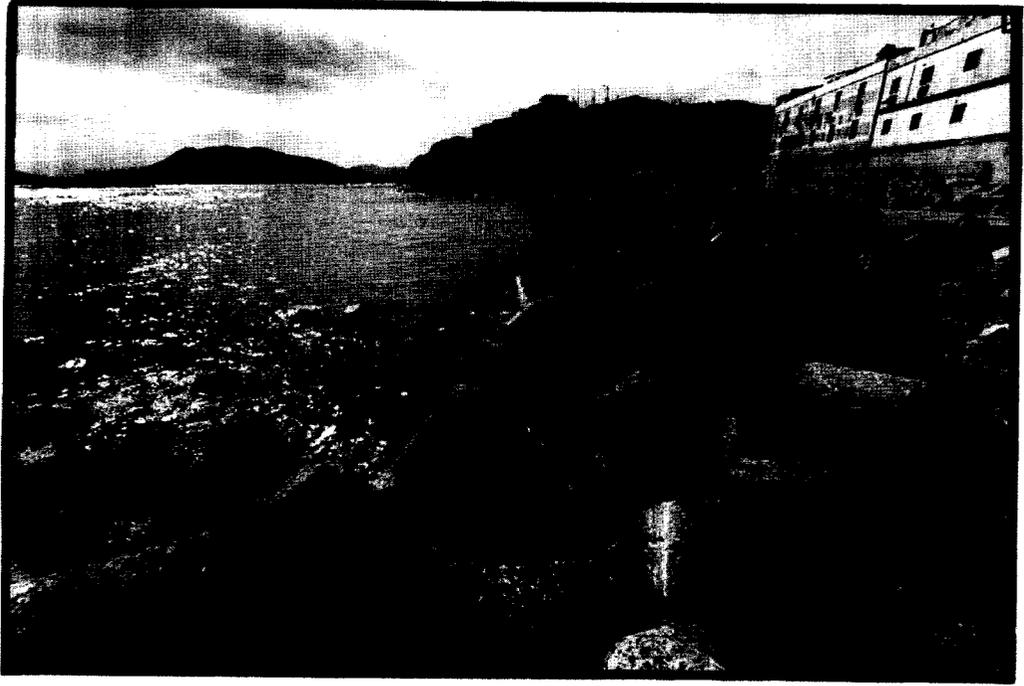
[사진 7]



[사진 8]



[사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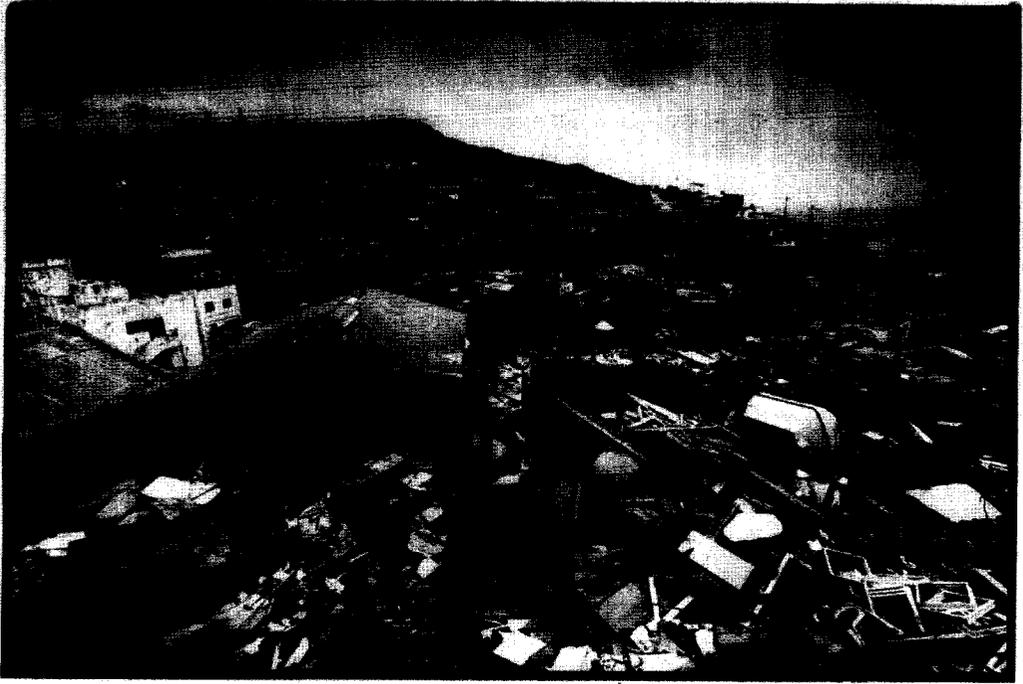
[사진 10]



[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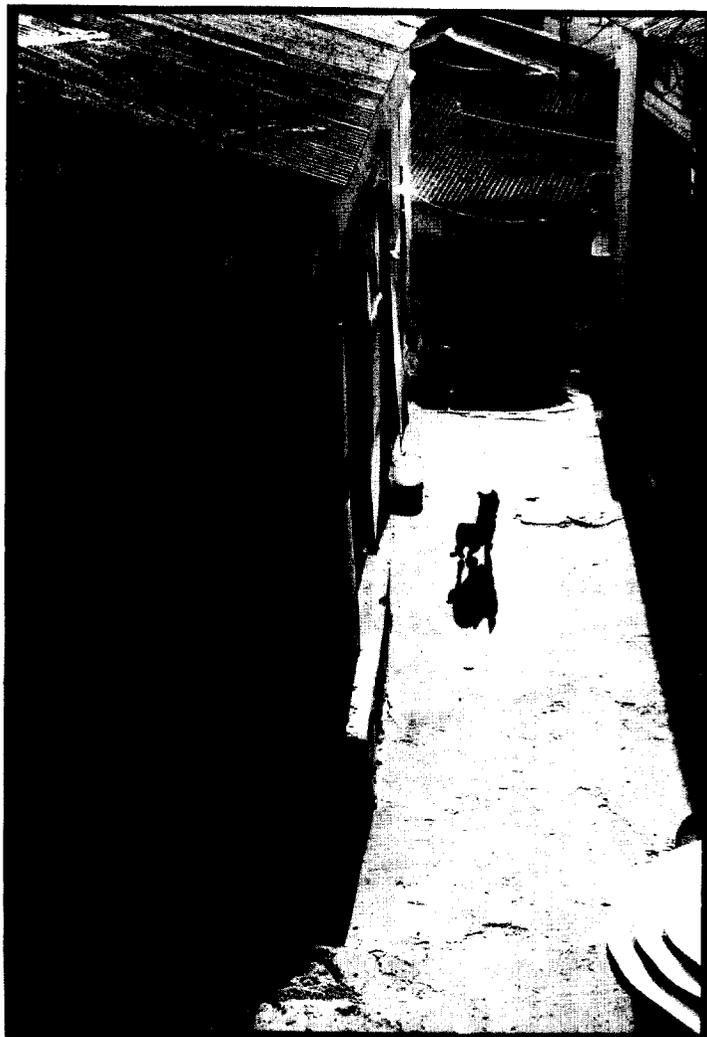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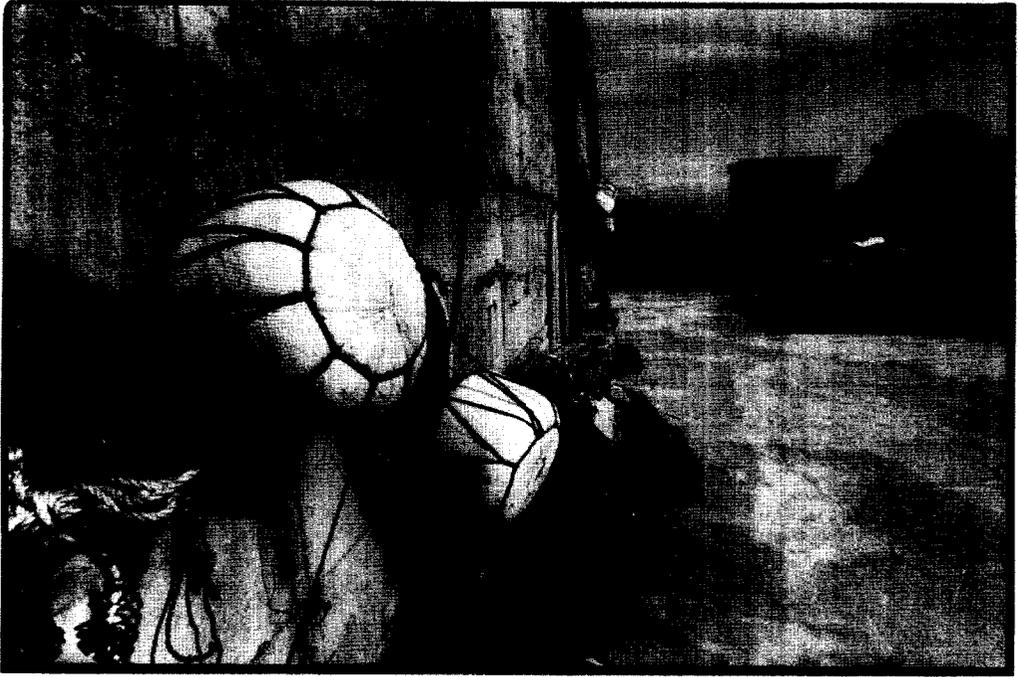
[사진 13]



[사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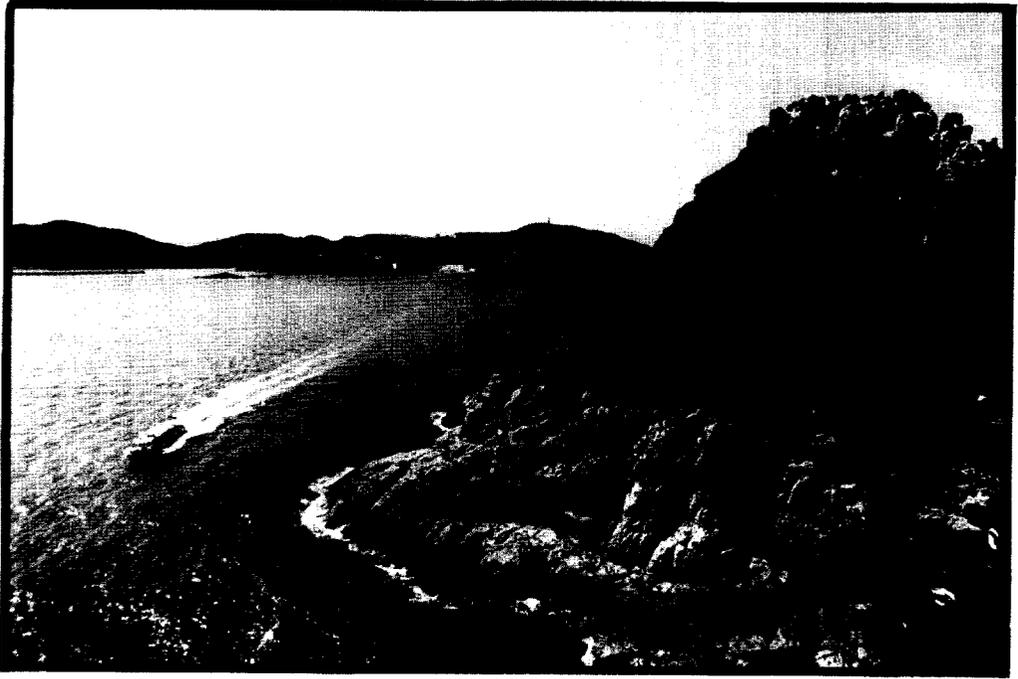
[사진 15]



[사진 16]



[사진 17]



[사진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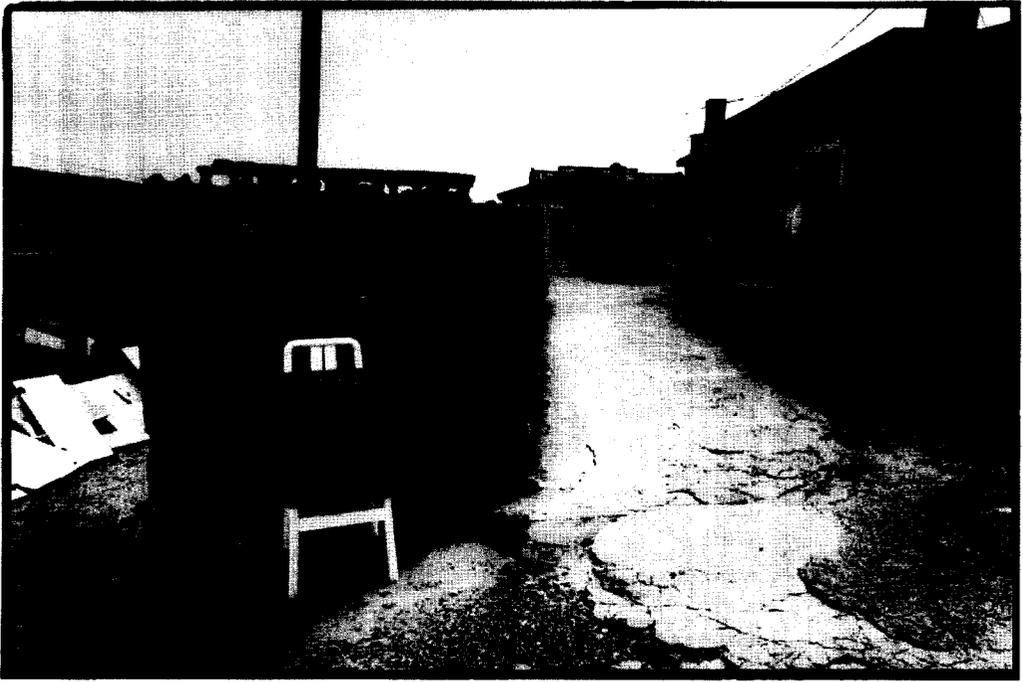
[사진 19]



[사진 20]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사진 25]



[사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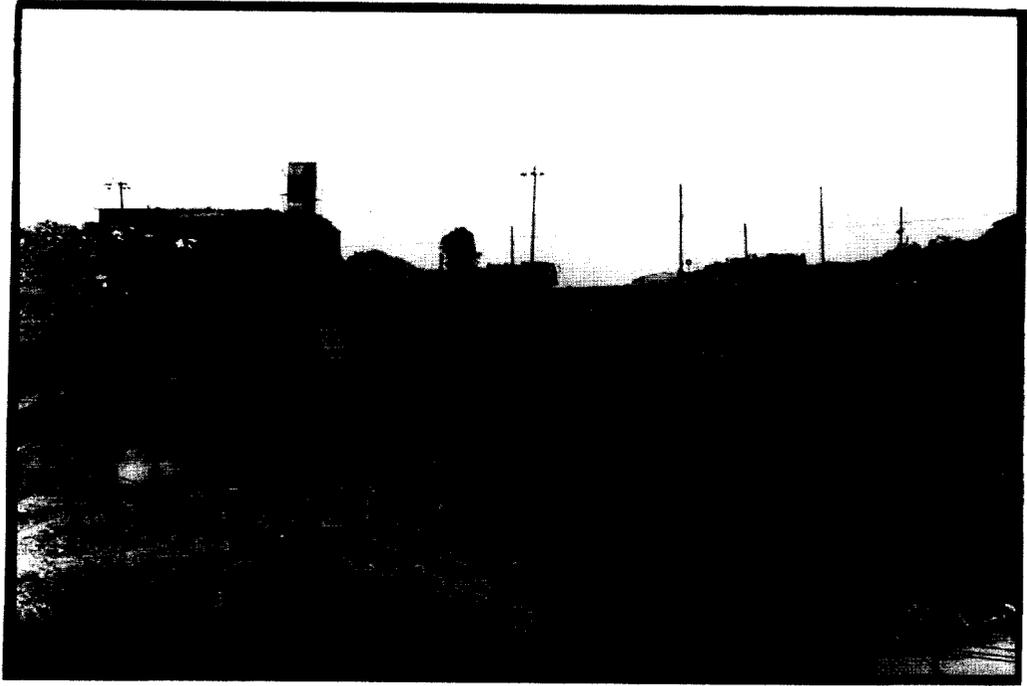
[사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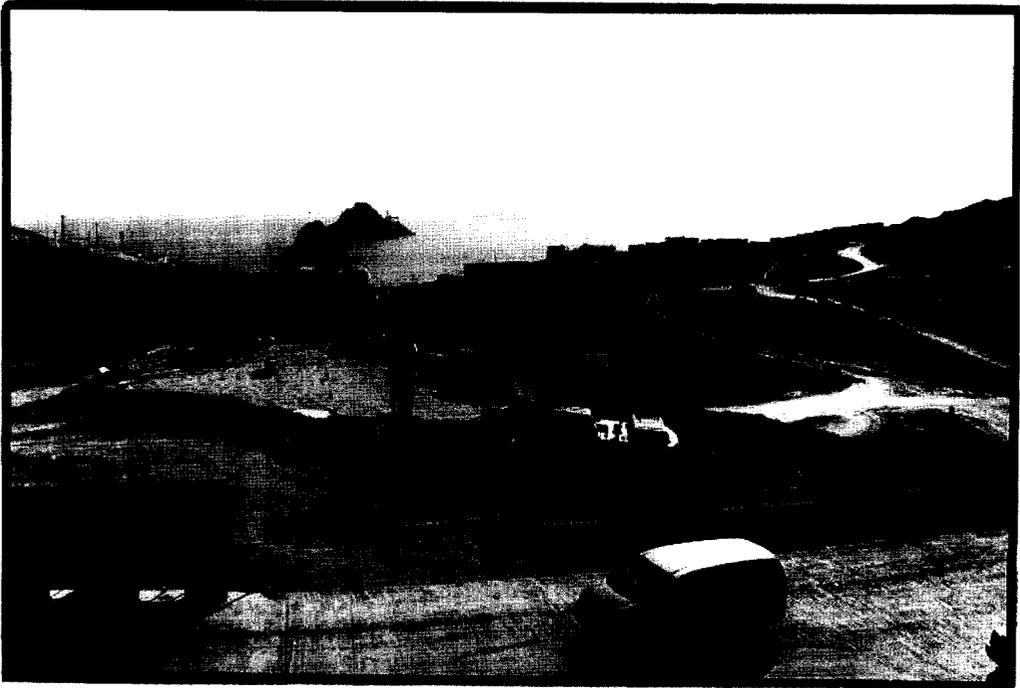
[사진 28]



[사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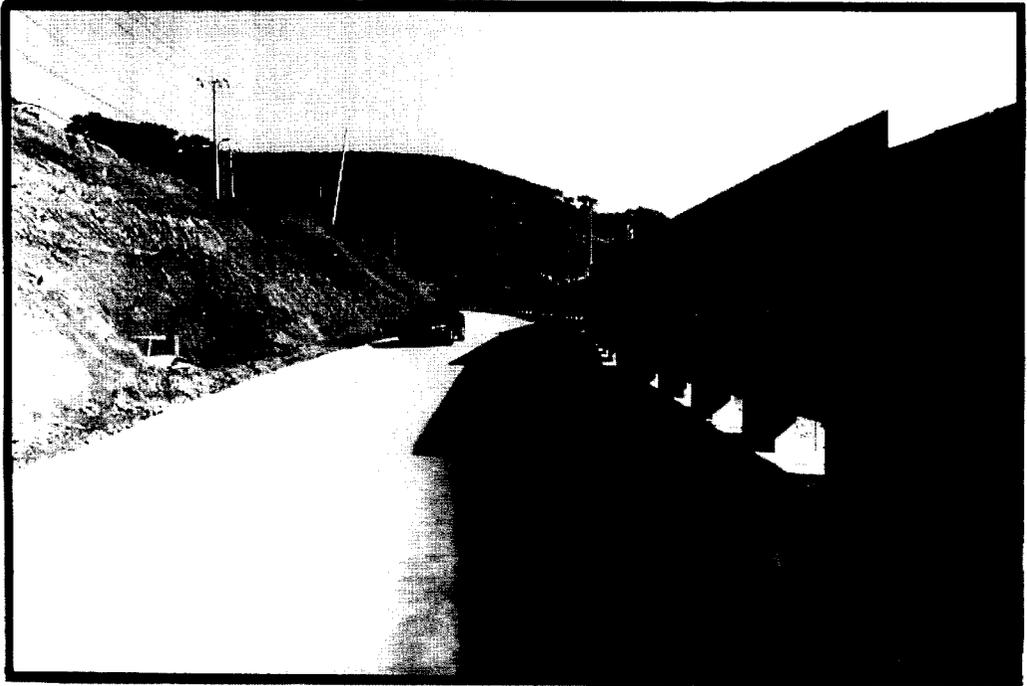
[사진 30]



[사진 31]



[사진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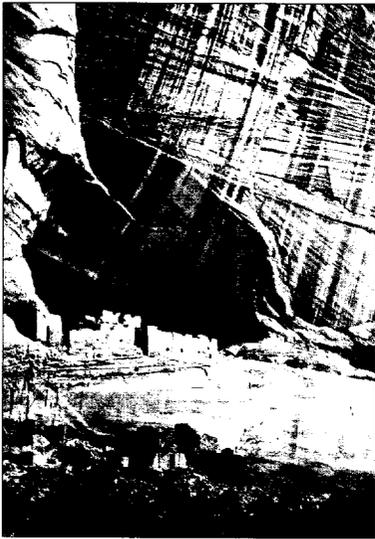
[사진 33]



[사진 34]

V. 참고자료

1. 도판



[도판 1] 터모나 오실리만
'캐니언 드 제이'



[도판 2] 로버트 아담스
'공사중인 집'



[도판 3] 제이콥 어거스틴 리스
'지붕위의 관자집'



[도판 4] 루이스 위게스 하인
'켄틀리이다 면사공장'



[도판 5] FSA 모로코의 항
'남민 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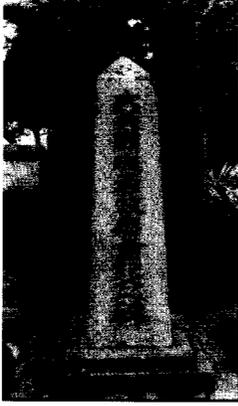
[도판 6] 유진 하니스 '피리부는 소년'
※인간가수전 하이라이트 사진



[도판 7] 윌리엄 클라인
'유혹' 중에서



[도판 8] 로버트 프랑크 '미 아메리칸즈' 중 에서



[도판 9]



[도판 10]



[도판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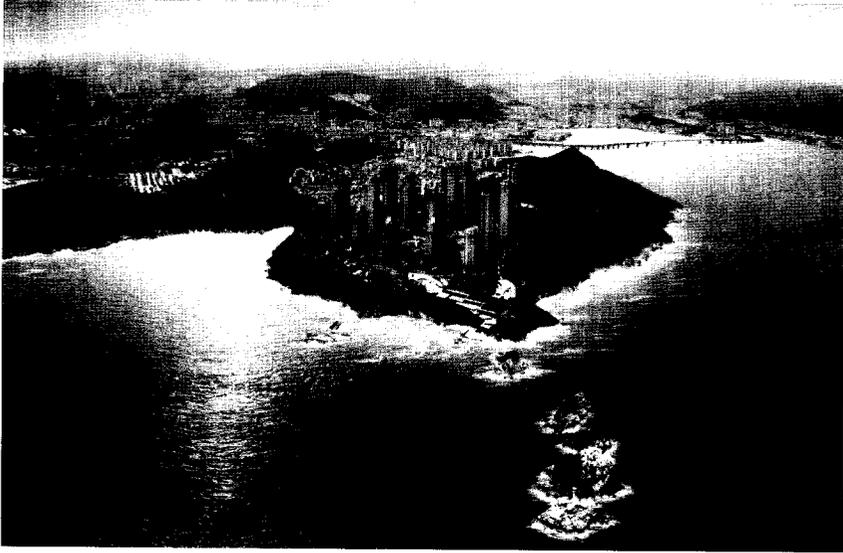


[도판 12]

< [도판 9~12] 필자가 찍은 '대영라병자구료회기념비'의 4면 >



[도판 13]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도



[도판 14]



[도판 15]

[도판 14] [도판 15] 용호동에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광고 속의 조감도

2. 참고문헌

국내문헌

- Toffler Alvin. **제3의 물결**. 李揆行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2.
- 부산직할시남구지편찬위원회 편. **남구지**. 부산 : 부산직할시 남구청, 1994.
- 한정식. **현대사진을 보는 눈**. 서울 : 눈빛, 2003.
- 사전편찬위원회 편. **영한중사전**. 서울 : 금성교과서, 1986.
- 이명동. **보도사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해돋이, 1988.
- 남구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 편. **부산남구향토지**. 부산 : 부산직할시 남구청, 1985.
- 부산시교육연구원 편. **향토자료집**. 부산 : 부산직할시교육연구원, 1970.
- 이영조. **원점사진학**. 서울 : 소문출판사, 1981.
- 이영준. **현대사진의 시각**. 서울 : 시각과 언어, 1992.
- 최병덕. **사진의 역사**. 서울 : 사진과 평론사, 1992.
- 홍순태. **현대사진의 조류**. 서울 : 신라출판사, 1987.
- 뉴홀 뷰먼트. **사진의 역사**. 정진국 역. 서울 : 열화당, 1990.
- 다발 장뢰. **사진예술의 역사**. 박주석 역. 서울 : 미진사, 1991.
- 프로인트 지젤. **사진과 사회**. 성완경 역. 서울 : 흥성사, 1978.
- 뉴홀 뷰먼트 외. **기록으로서의 사진**. 이주영 역. 서울 : 눈빛, 1996.
- 배동준. “**흑백사진의 처리요령**.” 한국사협, 90(1987. 9)
- 허용무. “**동강과 잊혀진 사람들**.” 한국다큐멘터리사진학회, 1(2001. 1)

국외문헌

- 瀧尾英二. **朝鮮ハンセン病史-日本植民地下の小鹿島**, 東京 : 未來社, 2001.

不二出版編集部 編. 植民地下 朝鮮におけるハンセン病資料集成 全8巻.
東京：不二出版, 2003.

URL

<http://www.imagepress.net>